

제 5 강 언어와 세계

◆ 2교시 인식의 과정과 시니피앙의 역할

▲ ‘의식하다’의 두 가지 의미

자 이어서 더 계속 나가볼까요. 아 좀 전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그러니까는 그 언어에서, 아직 언어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죠. (제가 조금만 더 옆으로 갈까요, 조금만.) 언어의 단계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의식을 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의식을 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항상 언어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의식, 넌 왜 의식이 없니?”라는 이런 말, 우리가 한국어 어휘에서 쓰잖아요.

‘의식이 없다.’, ‘재는 왜, 의식이 없어?’ 거기서 의식이 없다는 말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도덕적인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위가 망가졌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기도 하잖아요.

공교롭게도 서양에서도 이제 많이 그렇게 하죠.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능력하고, 글을 적절하게 좋은 곳에 쓴다는 그런 의미하고 두 가지를 많이 혼동해서 써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의미죠. 그런 이야기는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할 거예요.

▲ 상징화 능력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의식에 관계되는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다시 말하면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취합하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느냐? 그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현상과 표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앞에 있는 것,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니면 어쨌든 청각적으로 지금 들리는 것,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오브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화의 어떤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들을 연상해 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가 단순히 그 지금 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것도 찾아낸다는 거죠. 그게 동물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벌들도 그런 걸 하는 거죠. 벌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 어느 방향으로 팔자로 도는지, 아

니면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꿀의 정확한 위치를 서로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들도 마찬가지로 도는 거를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도는 것하고, 꿀하고는 꿀을 우리가 꿀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몇 백 미터 전방에 있다는 것, 어느 쪽 방향에 있다는 것, 그런 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눈앞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걸 동물들도, 벌들도 하물며 벌들도 정확하게 그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 지표의 개념

그러니까 그런 상징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차적인 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것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차적인 지각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다른 말로도 언어학에서 쓰이는 말로 한다면, 이걸 이제 지표라고도 해요.

지표라는 의미로도, 뭐 영어로 인덱스(Index)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용어를 주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아까도 제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했었잖아요.

인간 과학은 체로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통일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이미 다 쓰여 있었다는,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용어들이 다 다르죠. 제가 아까 여기다 썼던 ‘현상’이라는 말도 현상이라는 말이 대개는 비슷한 어떤 의미로 쓸 수가 있지만, 학자마다 현상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똑같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쓰여 있는 표상도 마찬가지로, 모든 제가 쓰는 용어들 다 마찬가지. 지금도 인덱스란 말 썼지만 인덱스라는 표현도 기호학에서 쓰느냐?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에 이렇게 인문학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용어 자체에서 그 어떤 의미를 끌어내면 안 되고 반대 방향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 용어를 주었는지를 봐야지, 용어에서 의미를 끌어내기 시작하면 그래서 항상 오해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영어에서는 인덱스라는 말로 지표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오브제예요. 지표를 통해서 다른 표상을 우리가 끌어내는 이런 세계를 언어학에서는 흔히 의미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 지표와 의미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의미, 뜻, 개념 이런 것들을 동의어로 쓴다는 말이죠. 일상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개념이냐?’를 똑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단어를 찾을 때, 이 단어의 개념을 찾으려면 ‘의미를 찾는다.’, ‘뜻을 찾는다.’ 다 동의어로 쓰는데 최소한 여기에서는 동의어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의미’라는 말로, 다시 말하면 ‘의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수의 언어학 안에서도 쓰고,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쓰고는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언어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꿀벌이 꿀의 위치를 전달을 해주는 능력, 개들도 서로 간의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잖아요.

그리고 돌고래들도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 정보의 해석 능력을 의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다른 문맥에서 개념하고 똑같은 뜻으로 썼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지표와 의미에서의 관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상과 표상 사이에서의 관계, 이 관계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현상이라는 말, 표상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동물과 비교한다든가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같은 거예요.

▲ 언어의 개념과정을 발견함으로써 탄생된 언어학

그래서 이게 상징화 능력이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과정을 상징화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첫 시간과 둘째 시간 즈음에 이야기를 했었던, 인간의 경우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뜻을, 개념을 전달을 하잖아요. 결국 그것하고 크게 보면 같은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언어를 보는 관점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소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개념을 전달한다는 그걸 언어라고 우리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과거에 문법들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소리를 연구하는 것이 음성학이었던 것이고, 개념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이런 식의 연구에서 언어학의 탄생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소리와 개념 사이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소리를 추상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것, 그 다음도 개념도 역시 추상적으로 분석하는 것, 그래 가지고 언어학이 탄생했다는 그런 걸 얘기했었던 거죠.

학제적인 의미로서의 언어학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개념 과정을

발견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언어학의 탄생이라고 했던 거죠.

▲ 보편적 지표로서의 소리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 소리도 일종의 하나의 지표라고 하는 거죠. 현상이고 우리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내죠. 표상을 해내죠. 의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미 과정하고,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는 과정하고, 언어의 과정하고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도 동물하고 똑같이 이런 의미에서의 전달을 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수를 가지고도 신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슨 다양한 신호 체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박수를 이렇게 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난할 때는 박수를 치지는 않아요. 비난하는 차원에서 박수를 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박수를 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어떤 찬사를 보낼 때 해요. 이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지요.

물론 어떤 하나의 특정 문화가 글로벌화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글썽요. 이건 그것보다는 뭔가, 손바닥을 두드리는데 이 행위 안에는 그 사람한테 앞에 있는 사람을 앞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다는 뭔가가, 예를 들어서 고개를 숙이는 행위도 마찬가지죠.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거만함을 상징하는 문화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는 표현을 자주하느냐, 빈번한가, 빈번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고개를 숙이는 행위는 거만함의 반대의, 다시 말하면 공손함이라든가 경의를 표한다든가 그런 것을 상징을 하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반대의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상징체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유니버설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상당수의 우리 상징체계는 우리가 동물들 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자연 안에서의 그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다든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런 행위가 우리가 나약함이라든가 혹은 무슨 나약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경우에도, 어느 문화에서나 아마 공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개하고도 어떤 그런 개한테 위협을 주려고 하는, 개도 알아듣고,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행위는 개도 알아들어요. 애가 나한테 위협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예뻐하

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개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를 줌으로 해가지고 다른 행위, 사랑, 애정 이런 다른 어떤 행동, 물론 그런 사랑이라는 개념화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개념화시킨, 개념화된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말로 표현되는 전 단계의 뭔가를, 그런 감정을 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서로 공유하는 거죠.

▲ 자연 단계로서의 정보화 능력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물들과 교감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가능하냐면 어느 정도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먹이 힘을 상징한다는 거, 이런 거, 필연성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연적 단계에서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그런 필연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읽어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운 예죠.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운동이고, 바람이 지나가는, 공기의 이동도 운동인데,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정지고..... 이런 걸 표상할 리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예요. 이런 어느 정도의 필연성이 동반이 되는 것이 이런 상징 단계에서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표상의 시스템이죠.

색깔로도 마찬가지로잖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그 정열, 이런 걸 상징할 때, 붉은색을 많이 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피의 색깔이니까. 그런 뭐 어느 동물이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열을 상징한다면 붉은 색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식의, 물론 이것이 이제 기호학이라고 하는 분야로 들어가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회학적인 그런 어떤 점에서 세미오틱스라고 하는 거. 사회학적인 단계에서의 상징체계의 통일,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필연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도 있죠. 필연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의 지표와 의미의 관계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언어학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다른 상징체계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공유한다는, 그러니까 이 문화와 저 문화가 하나로 기호 체계를 통일하는 그런 차원 안에서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학적인 문제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알파벳을 우리가 쓴다는 이런 것. 알파벳을 공유하잖아요. 알파벳 체계를 공유한다는 것에서 물론 알파벳이라고 하는 문자가 언어를 우리가 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어를 표기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목적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알파벳을 우리가 다른 걸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알파벳을 가지고 뭐 게임할 때도 쓸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언어의 단계를, 언어를 묘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하고 나하고 동일한 상징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에서 세미오틱스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것은 문제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게 뭐였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연 단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물하고도 공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연 단계로서의 우리도 하나의 동물이니까, 자연 단계로서의 정보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각 그리고 지각 그 다음에 지각된 대상들끼리의 전이 관계, 상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있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자연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 자연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필연성, 지표와 의미 사이에서 필연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상징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필연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동물들 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가 달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 하고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근본 체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세미오틱스에서 말하는 그런 단계에서의 공유하고 다른 문제라고 말씀 드렸었죠. 그런 사회학적으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된 기호를 만들자.”라는 그런 것은 세미오틱스에서 말하는 거고, 그런 체계 말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문자 숫자도 마찬가지지만, 아리비아숫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거는 세미오틱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고개를 숙이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자연 단계에서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인간만의 상징체계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필연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의 상징체계가 인간한테는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제가 글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처음에 변증법이라는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디알렉트(Dialect)이라고 하는 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여기서 지표라고 하는 것, 현상이라고 하는 것, 대상1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대상2 혹은 표상 혹은 의미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냐면 바로 이런 자연이라고 하는 그 필연적인 단계를 거부한다는 거죠. 필연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아까 박수 소리를 가지고도 살살 박수를 두드리는 거하고 세게 두드리는 거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지는 분명해져요. 박수의 강도가 그리고 박수의 횟수가 그리고 박수의 정도가, 기간이 잠깐 5초를 치는지, 10초, 20초를 치는지, 그게 비례를 한다는 거죠.

강도가 찬사의 강도하고 비례를 하고, 박수의 시간의 길이가 찬사의 길이와도 비례를 하고 그렇다는 건데, 다른 상징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로 소리를 가지고 하는데, 연구된 바에 의하면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상징체계는 언어로서의 상징체계는 소리지만, 소리가 아닌, 청각을 이용한 것이 아닌, 시각을 이용한 기호 체계도 있다고 하죠.

▲ 수화는 언어인가?

바로 수화라는 거죠. 저도 수화를 잘 할 줄은 모르지만, 수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것도 일종의 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언어냐 하면 넓은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돌고래도 언어가 있고 침팬지도 언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의 언어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언어가 아니라, 완전 추상화된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언어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해들은 대로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화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수화 안에는 너무나 많은 상징체계가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인물을 대해 묘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안경을 이렇게 내리는 행위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보면 프랑스의 현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 시라크 대통령을 얘기할 때는 코를 이렇게(코를 오른손으로 만지며 앞으로 죽 뺨음.) 한다고 해요. 시라크 대통령의 얼굴을 묘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추상적인 상징체계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직접적인 관계에서의, 필연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거죠.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수화는 언어 체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화를 많이 보고, 연구한 사람들은 그것은 일종의 의성어 같은 형태예요. 왜 인간의 언어에도 의성어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어 안에서도 의성어들 보면, 필연적인 그런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소리를 내는 것 안에. 그런 것일 뿐이고 “대부분 전체적인 체계는 추상적인 상징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말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주로 우리는 언어의 구성이 청각적인 어떤 소리로 되어 있지만 시각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면 근본적으로 수화라고 하는 것하고, 수기를 드는 행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수기를 드는 행위와 같은 것은 아까 말한 세미오틱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지만.

기호학적인 차원에서의 둘 사이에서 통일된 기호를 약속을 해놓고 쓰는 그런 기호지만, 그 기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기를 어떻게 드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어떤 특정한 그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지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를 어떻게 왼쪽으로 하고 손을 어떻게 하는 특정 행위가 또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를 잡고 있는 손과 깃발과 그 사이에서의 분석적인 그 나름대로의 체계 안에서 분석적인 그런 체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수화에서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엔 없고 수화엔 있고, 그런 게 대체 뭐냐? 그게 대체 무엇이길래 여기는 있다 그러고 거긴 없다 그러냐? 그게 설명이 되어야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 인식 과정 중 시니피앙의 단계

그게 우리가 언어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거죠. 지표에 해당하는 것이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료죠. 자료예요. 재료,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리를 가지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묘사라고 할 수 있는 것, 관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간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이미지라고 해놓죠.

물론 여기서 쓰는 이미지는 제가 적절한 말을 어떻게 붙일지에 대한 어떤 고민에서 그런 것이지 다른 예를 들어서 베르그송이 썼다는 ‘이미지’라든가, 베르그송이 썼다는 ‘이미지’는 평

장히 광범위하죠.

‘그렇게 중요한 이미지를 광범위한 뜻으로 써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광범위하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쓴 이미지는 아니에요. 소리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단어. 그런데 여기에서 소리라고 하는 것, 그렇죠. 관념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관념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소리를 가지고 관념을 표시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결과물인 거죠. 옛날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언어학이 20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언어가 20세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까 초반에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이걸 찾아내게 된 것이 20세기의 일이라는 것이지, 그전에도 소리를 가지고 관념을 다 묘사를 했죠. 그런데 ‘이게 진짜 소리냐?’ 그걸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언어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관념이라는 게 그 자체냐?’, ‘하늘에서 툭 떨어졌냐?’, ‘소리를 던지면 관념이 툭 떨어지냐?’ 그거죠. 바로 이 관계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언어학의 탄생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 소리라는 것의 추상적인 분석 능력, 그게 바로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시니피앙의 단계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더 밑으로 내려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에다 다시 써볼까요? 현상을 가지고 표상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써 놓을까요?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오브제를 의미하는 O1에서 오브젝트를 다른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오브젝트2 라고 써놓고, 이것을 언어학에서 흔히 지표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했죠.

지표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 의미라는 용어를 쓰고, 결국 이게 언어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소리라는 거죠. 소리와 관념의 단계, 다시 말하면 이 지표나 의미, 이 관계는 언어를 말하지 않을 때에도 이미 있는 이야기죠. 지표나 의미는 언어를 말하지 않을 때에도 있는 개념들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동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반면에 소리와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소리와 관념의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서 어쿠스틱(acoustic)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서 사용하는 채용하는 그 물질적인 재료들이지 그 자체가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쉬르의 용어를 빌리자면, 소리의 이미지라고 했었잖아요. 소리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이미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시니피앙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시니피에라는 걸 썼는데, 시니피에를 썼는데 소쉬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소리의 이미지이려면 관념의 이미지여야 하죠. 그런데 소쉬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관념이라고 놔뒀어요. 뭔가 불균형이 있죠.

그 다음에 엘름슬레우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한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도 관념에서도 역시 관념 자체가 아니라 ‘관념의 이미지다.’ 이런 말을 이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념의 이미지라는 말은 소쉬르가 쓴 말이 아니고, 그리고 소쉬르 본인이 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최소한 소쉬르의 이름으로 나오는, 제자들이 만든 책 안에는 없어요. 그 안에는 없는 개념이고, 나중에는 무언가 불균형을 발견하고 엘름슬레우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관념의 이미지이지 관념 자체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학에서 말하는 음운을 가지고 연구하는 음운론이라는 그런 분야고, 여기서는 엘름슬레우의 용어로 한다면 이제 또 다른 형태론이나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헛갈릴 수 있으니까, 그 용어를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용어로 관념을 이미지화시킨다고, 시니피에라는 것, 문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념 자체가 아니라 문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언어 자체 안에서의 세계, 질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관념이 아니라. 이게 소리가 아닌 것처럼 이것도 관념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엘름슬레우는 언어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게 언어의 세계가 아니라 언어학의 세계라고 했었어요. 언어학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엘름슬레우의 언급도 그랬지만 옛날의 20세기의 초기의 언어학은 주로 이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리를 배제한, 관념을 배제한, 그런 언어학이거든요. 관념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언어학의 문법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문법적으로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에 따라.

물론 정확하다는 이야기가 규범 문법에서의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규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 체계가 바뀌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러면 바뀌잖아요. 한국말에서도 그 체계가 바뀌고 하듯이 그런 규범 문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 시니피앙 안의 질서

각자가 일정한 체계화된 논리를 통해 만들어 왔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 이 세계 안에서는, 이 자체 안에 있어서는 다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나 하면, 우리가 간단한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입 바깥쪽에서 내는 소리, 한국말로 양순음이라고도 부르고, 순음, 입술로 내는 소리잖아요. 입술 순(脣)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는 소리, 이쪽이 제일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죠.

입으로 낼 수 있는 소리 중에서 가장 바깥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잖아요. 입으로 언어를 말하니까, 우리가 언어를 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으로는 가장 바깥에서 있는 입술로 하는 거죠.

반대로 점점 뒤로 가면 저 맨 끝에서는 우리가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신체 기관은 목 쪽에 있는, 이 정도에 있는 소리겠죠. 뭐 더 들어 가면 ‘ㅎ’ 같은 경우엔 하나의 자음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소리들이 저 목뒤로 넘어가서, 이 안에서 그 사이에서 다양한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 밖으로 나오는 것과 저 뒤쪽으로 나오는 것, 보통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하잖아요. 코고, 이빨이라면, 단면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 이쪽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 이 정도에서 나오는 소리, 혀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목이 이렇게 넘어가고, 뒤에서는 이 정도에서도 소리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자연 단계에서 쓰는 지표로서의 그런 거, 만약 입 밖에서 나오는 소리가 찬사를 보내는 거고, 입 뒤에서 나가는 소리가 그 사람에게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게 있다면 중간은 이진 덜 찬사를 보내는 것, 뒤로 갈수록 혐오가 좀 더 심해진다는가, 뭔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음운 체계 안에서의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입술 두 개를 가지고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찬사를 이야기하는 게 되고, 뒤에서 ‘호호’ 이런 소리에 가까우면 혐오를 나타낸다는가 아니면 그 반대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순치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빨하고 입술하고 이 경계선의 소리, 아니면, 혀의 끝을 가지고 이 위를, 입천장을 때리는 소리, 아니면 여기를 입천장을 두드리면서 내는 소리들 중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연구개음, 경구개음 해서, 연구개음은 약하다는 의미에서 연이잖아요. 강하다는 의미에서 경이고, 입천장에 혀를 대어보면 앞쪽이 단단하고 뒤쪽이 무르죠. 앞쪽 입천장을 두드리며 내는 소리를 경구개음이라고 하고, 뒤쪽의 약한 쪽을 두드리며 내는 소리를 연구개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만약 불어를 예를 든다면 말이죠. 불어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리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그런 체계로는 이런 걸 사용해요, 습관적으로. 이건 기호학이죠. 기호학적인 문제고 이렇게 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소리 이미지의 자의성 - 개별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음운 현상

이것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대괄호를 묶는 것[r]을 이걸 보통 음성학 기호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사전에도 나오는. 음성학 기호로는 이렇게 [r] 써놓으면 이렇게[r]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운론적인 기호로 이렇게/r/ 비스듬하게 표시를 해놓으면 음가(音價)로서 하나의 이미지로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것이지 정확하게 소리를 어떻게 내라는 의미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r/ 쓰는 것을 갖다가 다양한 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 건가를 본다면, 소리를 이렇게[r] 낼 수도 있고, 이렇게[R] 낼 수도 있고, 이렇게[ʁ] 낼 수도 있고, 혹은 소리를 이렇게[ɾ] 낼 수도 있고, 무한대로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불어에서의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불어로 ‘쌀’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riz) 써요. 이건 실제 알파벳이죠. 이건 발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발음은 보통 프랑스 사람의 경우에, 프랑스도 지방에 따라 발음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프랑스라는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 사투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6배인가 크죠. 그런데 사투리가 별로 없어요.

옆 나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가 큰 폭으로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경우에 없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쟁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저도 잘 믿어지지 않지만 저도 그 선생님께서 들은 이야기라 하는 건데, 음성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라서 그런데 전쟁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발음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 분들도 남자들 군대 가서 사투리 쓰면 맞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인권 문제는 다른 문제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위급 상황에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될까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상하게 사투리하면 때리는 것, 이렇게 변질이 된 것인데 이게 전쟁이 나면 이렇게 돼요. 죽기 싫으면 굳이 사투리 쓰지 말라고,

굳이 그렇게 프랑스가 불과 20세기만 해도 언어가 통일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큰 전쟁을 겪으면서 언어가 통일이 되었다고 해요. 물론 거기에다가 매스컴의 영향까지 다 있고 해 가지고 20세기 와 가지고 불어가 전역에 걸쳐서 쓰이는 언어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되었다고 해요. 프랑스 혁명 이후로 시도는 여러 차례 했었는데 성공은 못 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발음이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동소이해

요. 이것을 보통 [레이]라고 발음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발음이 한국에서 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거 /ㄹ/ 있잖아요. /ㄹ/ 이거 하고 많이 다르죠. 한국에서 /르/죠. 그런데 그렇게 발음을 안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레이] 이렇게 발음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그래도. 알아는 듣지만 정보가 어느 정보냐면 그 어떤 언어학적 정보가 아니라 사회학적 정보예요.

‘개, 외국 사람이구나!’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쌀이 보리가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다양한 표기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표기가 정확히 음성학적으로 이게 한국에서 쓰는 ‘르’예요.

한 번만 하는 것. 이렇게 쓰면 이렇게 [를르르]하는 거 있죠. 스페인에서 여러 번 굴리는 것, 불어에서는 [르르르] 여러 번 굴리든, 한 번만 [르] 굴리든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언어학적인 문제는 한국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나 [라라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나 언어학적으로는 아무 정보가 바뀌질 않아요. 그렇죠? 왜요? 음성학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소리의 이미지 상으로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굴리나 여러 번 굴리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안 돼요. 스페인에서는 소리의 이미지가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음운이 달라요. 한 번 굴리는 거 하고, 여러 번 굴리는 거 하고, 그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페드로] 하는 거랑 [페드로]하는 거랑 달라요.

하나는 영어의 ‘but’이라는 말이고 ‘그러나’의 뜻이고 하나는 ‘개’,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한 번 굴리나, 여러 번 굴리나에 따라 의미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니피앙의 세계에선 다르다는 거죠.

그건 스페인에서는 달라요. 그러나 불어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것은 비슷하다고 쳐요. 이건 저 목 뒤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리고 목 뒤에서도 한 번만 [러]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러러러러] 이렇게 여러 번 굴릴 수도 있고, 요즘엔 잘 안 하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가수들은 목 뒤에서 많이 굴렸어요.

에디뜨 비아프라든가 옛날 샹송 가수들을 들어보면 많이 들릴 거예요. 혀를 굴리는 게 아니라 목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음성학적으로는 하나는 여기에서 나는 소리예요. [러러러러] 이건 여기에서 나는 소리예요. 하나는 여기에서 나는 소리예요. 혀를 여기에서 또르르륵 굴리죠.

여러 번 굴리나, 한 번 굴리나 여기에서 나는 소리고, 하나는 여기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 발음 기관 상으로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불어에서는 이것 하나 안에 다 묶인다는 이

야기예요.

그러니까 음성학적으로는 혹은 음향학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이걸 하나의 체계 안으로 다 묶어요. 그런데 한국어에서의 ‘ㄹ’하고, 초성에 오는 ‘ㄹ’하고 종성에 오는 ‘ㄹ’ 하고는 어떤가요.

일본어에서는 ‘ㄹ’ 받침 이런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의 경우는 ‘R’ 이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아르]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것[r]과 이것[l] 사이의 구별이 모호해요.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것[r]과 이것[l] 사이에 변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성학적으로 이렇게[r] 쓰나 이렇게[l] 쓰나,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거/r/라는 거예요. 다시 쓸까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아니예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것/r/과 이것/l/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만약에 /레이/해야 될 자리에다가 /리/를 하면 그러면 바뀌어요. 이것은 아까 ‘쌀’이었죠? 만약에 이것을 /리/라고 해버리면 침대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리/, /ㄹ ㄹ 리/하면 다 똑같은 ‘쌀’이에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듯이 /리/하면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침대가 되어 버려요. 이게 다 무엇을 이야기해주는 것인가요? 실제 소리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안에서 어떤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겠죠. 가까이 물려 있으면 비슷한 소리일 테고, 아무래도 멀리 있으면 다른 소리일 테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소리의 이미지 안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예요. 이 안에서 어떻게 묶어지는지는 언어 안에서의 세계이지 자연 속에서의 필연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 체 혹은 틀로서의 시니피앙과 단절 기능

이 시니피앙의 세계는, 바로 그래서 이 단절 말이죠. 소리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저 단절. 저게 바로 우리가 아까 부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변증법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부정이라는 것. 이것은 소리가 아니예요. 이것은, 음운 체계는 다시 말하면 시니피앙의 세계는 소리의 세계가 아니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말이죠, 그냥 소리가 아니다. 언어는 이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엘름슬레우의 언어학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의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다면은, 언어가 단지 그냥 시니

피앙의 놀음만 하려고 그냥 끝난 것이냐? 본래의 어떤 소리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안 내냐? 이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소리의 이미지만 있고 소리를 안 내냐? 이거죠. 소리를 내기는 내죠. 단지 이런 체계 안에는 이런 것[R], 우리가 현실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현실화 될 수도 있고, 이 2개는 목 뒤에서 나오는 소리, 살짝 /러/할 수도 있고, /르/할 수도 있고, /르/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현실화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이미지만 남아 있지는 않아요. 분명 어떻게든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 안에서의 소리는 자연적 단계에서의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리잖아요. 관념과의 어떤 필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니피앙의 세계는 시니피에와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의 세계가,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의 소리의 세계가 실제 우리가 발음을 내는 소리 있잖아요. /러/, /르/ 등 다양한 소리들이 똑같은 소리들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뭐 어떻게 쓸까요? /러/, /르/ 이런 것들을,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나요? 그것들이 바로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 이 틀을 통과된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소리는 소리잖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 단계에서의 어쿠스틱, 소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 거죠. 이것[R]도 소리예요. 아까 이것-시니피앙-은 소리가 아니라고 했죠.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추상적인 세계지. 추상적인 틀이지 소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이것[R]은 소리예요. 그런데 이 어쿠스틱 세계에서의 소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차이점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묶이고, 떨어지고,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제공을 하나면, 시니피앙에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시니피앙에서 허락을 하면 되는 거고,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하나의 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체로 빠져 나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거친 상태에서 흠이라면 이것은 체를 빠져나온 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흠을 거르는 체지.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부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의 부정이에요. 그런데 소리예요. 이 소리는 왜 만들어져요? 이 틀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소리라는 거죠. 두 번의 부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 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자연 단계에서의 소리의, 물론 근접을 하겠죠.

그렇지만 자연 단계에서의 소리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자연 단계에서 나오는 소리들, 예를 들어서 인간들도 이런 소리를 많이 내요. 그런 소리를

내죠. 입에서도 그런 소리를 내죠. 뭐라고 할까, 동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인간도 그런 소리를 내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도 똑같은 상징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시니피앙의 체를 거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자연 단계에서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더 내 감정을 표현을 잘 할 수도 있어요. 동물의 포효 같은 소리를 낸다든가, 훨씬 더 내 감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예를 든다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골을 넣었어요.

그랬을 때, “골인”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큰 동물 같은 포효 하나가 더 큰 내 현재 감정 상태를 전달할 수도 있지요. 전달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언어화된, 정제된 그런 단계는 내가 진짜 표현하고자 하는 것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뭔가 안 맞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언어화된 단계에서의 어떤 체계를 이 체계 안에서 나온 조합, 그 다음에 분리되고 다시 이런 체계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소리는 소리를 “악” 지르는 것하고 “아” 하는 것하고, “어” 하는 것하고는 연관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속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에서 연속적이냐면, 연속, 불연속이 수학에서 쓰는 의미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끊기 어렵다는 거예요. “악” 하는 것하고 “아아아” 하는 것하고 이 사이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이런 감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디까지라고 딱 끊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까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사람이 소리를 낼 때는 예를 들어서 한국말에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 하고 ‘어’ 하고 중간이 어디일까요? ‘아’하고 ‘어’ 중간을 해 놓으면 ‘아’예요, ‘어’예요. 예를 들어서 ‘아, 어’ 사이에, /아/, /어/ 제가 지금 낸 소리가 ‘아’인가요, ‘어’인가요. 자연 안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구별이 안 되는 것을 인간은 시니피앙을 통해서 단절을 해요. 딱 잘라버려요. 방금 것은 /아/였다고 그러면 이해되었고, /어/였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 번 분명히 시니피앙 단계에서 단절을 해버린다는 거죠. 중간이라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는 무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연속적이니까, 음운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한국어에서는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가 정해져 있죠. 모음 몇 개라는 것이. 분절이 가능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 통해가지고, 다시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쿠스틱한, 음향학적인 소리가 아니라 음성학적인 소리라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